

대한양계협회소식



제 14회 전국육계인대회 성료



지난 6월 1~2일 양일간에 걸쳐 제 14회 전국 육계인대회가 경남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본회가 주최하고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재성)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최준구 회장을 비롯한 장재성 위원장, 황수연 부산경남지회장을 비롯한 양계관련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시상식에서는 (주)체리부로 김인식 회장, 고성군청 최봉호 계장, 당진육계지부 최치재 지부장, 대구경북도지회 류준희 육계분과위원장, 춘향농장 이재환 대표, 수동농장 김예배 대표, 구자권 밀양시 부지부장, 류규식 경남도지회 이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에 이어 세미나발표, 육계인의 밤, 행운권 추첨, 공룡엑스포 관람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었다.(관련기사 124페이지)

회장단 회의 개최



지난 21일 본회회의실에서 회장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서는 한·미간 FTA, 자조금 검정소 이전, 월간양계발간, 분과위원회 활동, 주요행사, 회원회비 및 산란계자조금 납부상황 등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가 있었다.

제2회 이사회 개최(안)으로 (1) 당진육계지부 설치승인(안), (2) 임원협찬비 협조(안), 재규정 개정(안) [직제, 여비, 여산회계] 등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제2회 이사회는 7월 4일(화)에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종계DB추진 협의회 백세미, 부회장 종계DB사업 연계토록



지난 15일 본회회의실에서 종계DB추진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종계DB사업 추진 사업보고와 집계자료 분석, 사업기간 동안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보안키 위한 협의를 가졌다.

국내 종계업 현황은 254개 농장에서 5,589천 수수가 사육된 것으로 집계됐다.

육용종계에서는 2005년 6~11월 종란을 생산한 계군은 생존율이 84.2%이며, 2006년도 1/4 분기 종계의 표준산란율(82.6%)과 실제산란율(68.6%)은 14.3%차이가 나타나 종계생산성이 좋지 않아 다수 종계장에서 병아리공급에 차질을 빚었으며 품질이 낮은 육용실용 병아리가 분양됨으로써 육계사육 농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산란종계에서는 2005년 6~11월까지 입식된 종계는 228천수이며 2005년 5월 기준 생존수 수 215천수 입식대비 5.7%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6월부터 11월까지 입식된 계군은 평균 83.7~91.9%의 산란율을 보임에 따라 표준 산란율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문제점 및 발전방안 토의에서는 종계DB농가

방문조사에 대해 1~4차 조사 기간에 협의와 백세미와 부회장의 DB사업을 연계해 보다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채란분과위원회 산란종계 수입 차질 우려



지난 5일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선웅)와 산발협의회(위원장 손병원)가 본회 회의실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지난 5월 19일자로 덴마크에서 시가 발병되어 다시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산란종계 수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여전히 프랑스와 독일의 수입이 재개되지 못하여 앞으로 EU 지역의 수입재기가 되지 못할 경우 생산잠재력은 월 2백만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아 전체적으로 양계산업에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았다. 또한 7월 이후로 가면 잔알 생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노계도태가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까지 산란계 임의자조금은 저조하게 거출되는 상황으로 자조금 사업 실적표를 제시하고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산란실용계 D/B사업 추진계획(안)은 축산업등

록농가 및 본회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각 지역 및 사육수수별로 농가 1,863가구에서 협의 후 표본대상농가를 선정기로 하였다.

농가조사방법(안)은 농가의 인적사항과 품종, 입추수수 등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산란율, 폐사율, 환우여부 및 질병발생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본회에서 농림부로 건의하였던 뉴캐슬 백신 추가지원 및 효율성 검토 요청에 관해 초기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약 지원 및 이와 관련한 방역정책을 추진하고 그 외 면역증진을 위한 보강접종 등에 대해서는 양계농가 자율에 따라 자부담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는 회신을 해왔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회신내용안과 달리 농가에서 산란계사육기간이 육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만큼 이를 고려하여 뉴캐슬 백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종계·부화분과위원회 원종계 수입계획 물량 큰폭증가



지난 14일 본회 회의실에서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이연중(중계DB사업 추진결과로 2005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식한 종계는 84.5%의 생존율을 나타내었고, 8월

에 분양된 종계에 대한 폐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GPS 적정물량은 94,000수(D라인기준)로 보고 이에 대한 쿼터제가 작년 상반기까지 시행되었지만 쿼터제 파기이후 2006년 육용 원종계 3사의 수입계획물량이 127,000수로 큰 폭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3/4분기 이후 육용실용계 생산잠재력 감소에 따라 10월 이후의 병아리 가격에 호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북경기 병아리생산 잠재력의 큰 폭 증가가 예견된 가운데 말복 병아리에 대한 가격 상승과 월드컵 특수로 인한 강세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하였다.

육계분과위원회에서 제기된 육용병아리 실명제 추진을 위한 논의 건에 대해 현재, 종계농가에서는 이미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사용한 병아리 박스를 실용계 농가에서 폐기하기를 바란다는 발언이 있었다. 종계장의 약품지원에 대해 제도권내 있는 농가에 대해 실시해야하나, 무허가 농장도 신청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의 형평성에 어긋난 방법을 지양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육계분과위원회 육계 의무자조금 활성화 방안모색

지난 21일 본회 회의실에서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재성)가 개최되었다. 지난해 3/4분기에 입식된 육용종계 계군이 아직 생산에 가담되고 있어 특히 9월 계군의 경우 6월 현재 병아리 생산 피크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분간 병아리 생산량은 예년보다 많을 것을 전망하였다.



2006년도 육용실용계 생산잠재력은 매월 4천만 수를 넘으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내년 초부터 감소세를 보일 전망을 내다보았다. 지난 1~2일에 걸쳐 진행된 '전국육계인 대회' 및 지난 20일에 열린 육계자조금대표자회의의 결과 보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육계분과에서는 의장과 관리위원의 의견을 전적으로 일임하겠다고 결의하였다. 이외 불량 병아리 퇴치 방안에 관련하여 병아리 박스의 실명제, 종계 티푸스 사용금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내 육계위원과 종계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결성하여 서로의 합일점을 찾는 방법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홈페이지 새롭게 단장

7월 1일부로 회원서비스 강화차원에서 본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된다.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는 나모웹으로 관리하던 시체를 DB화하여 원하는 시간에 시체자료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제작하였으며, 각분과위원회 별로 공간을 제작하여 업계관련 통계자료, 의견 및 현안에 대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계DB 프로그램, 날씨정보, 사고팔기, 묻고 답

하기 등 별도의 창을 제작하여 농가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한편 월간양계코너에서는 새롭게 단장함은 물론, 창간호부터 현재호까지 PDF파일로 기사를 DB화 하여 과월호 및 기사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제공한다.

본회 감사패 수상

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회장 김기용)는 지난 8일 40주년 창립기념식을 가진 자리에서 양계 생산자 단체로서 양계인의 권익신장과 한국 양계 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한 공로로 본회(회장 최준구)에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이날 대한양돈협회, 낙농육우협회, 전국한우협회는 축산인의 권익신장과 한국 축산업 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함께 수상하였다.



육계자조금대표자회의 자조금 시행 필요성 재확인

지난 20일 본회회의실에서 육계자조금대표자회의가 열렸다.

본회 최준구 회장을 비롯해 한국계육협회 한형석 회장, 농협중앙회 남상우 상무, 육계자조금



대의원회 이홍재 의장이 자리에 참석하여 4월 20일 자조금 거출여부를 결정한 이후 정제되어 있는 관리위원 및 감사선출한 것과 관련하여 자리를 가졌다.

한형석 위원장은 “대의원들이 재선출한 관리위원들은 준비위원장으로서 정해진 제도권내에서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해당기관이 법해석을 의뢰하여 인정된 사항을 제시하면 그 사항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하며 준비위원장으로서 볼 때 명확한 근거를 제시되지 않는 한 현재 선출된 관리위원의 인정여부가 어려울 것으로 의견을 주었다.

남상길 상무는 “양돈, 한우, 낙농은 현재 정해져 있는 제도에서 자조금이 무리없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육계에만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운영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거론된 수도 있다.”고 말하며 “원활한 자조금 추진을 위해서 양계에만 특수성을 적용해 운영규정을 변경하기보다 대의원회와 준비위원회 간 합의점 모색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육계자조금 진행에 있어 자조금만을 고려하여 진행사항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배제되어야 할 계열주체와 계약농가간 해결문제가 개입되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로서는 규정에 따라 준비위원회에서 추천

한 관리위원을 대의원회에 위촉하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대의원회에서 관리위원 및 감사를 협의하여 준비위원회에 추천하면, 준비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를 심사 확정(안)을 만들어 대의원회에 상정하고 최종적으로 대의원회에 이 (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한형석 회장이 전했다.

이에 이홍재 의장은 자조금 대위원들에게 본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회장 동정



◀ 최준구 회장

- 6/5 6월 차관분과위원회
- 6/8 FY2007 CAN Korea사업전진대회
- 6/9 6월 편집위원회
- 6/14 2006 축산경영학회 하계심포지움
- 6/15 농업인단체장 초청간담회
- 6/20 육계자조금 공동준비위원회
- 6/21 본회 회장단 회의, 6월 육계분과위원회
- 6/21 축산자조금 지도자 모임/한국자조금연구원
- 6/24 제 6회 가금관련단체 친선등반행사
- 6/26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협의회/축단협
- 6/27 한미FTA 공청회/농림부